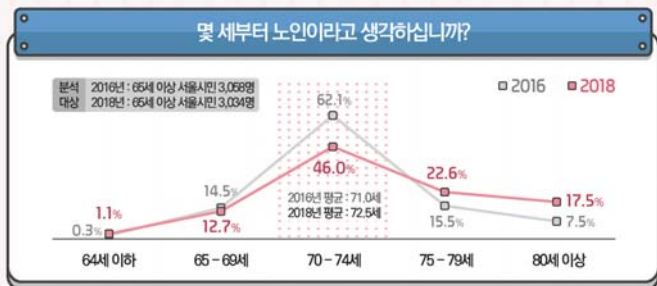


노인 기준 연령 72세 10명 중 3명은 노동

[서울 노인의 삶]

노무직>판매직>서비스직 순으로 일해
10명 중 6명 독거·노인 가구에서 살아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10명 중 3명 이상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서울 시민 3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노인 중 36.1%는 일을 하고 있었다. 주로 단순 노무직(34.4%), 판매직

(25.8%), 서비스직(25.1%)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일을 하고 있는 서울시 노인의 종사상 지위는 지역자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고용주 등의 순이었다. 2016년 대비 지역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일용직과 고용주의 비율은 증가했다.

최근 1년 동안 서울시 노인이 여가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야외 공간, 종교시설, 복지관 등으로 조사됐다. 외출 시에는 주

로 지하철(36.5%), 버스(26.0%), 도보(22.2%), 자가용(10.5%)을 이용했다. 계단이나 경사로(37.1%) 등 물리적 결함이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꼽혔다.

서울시 거주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이며 10명 중 4명은 75세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노인복지법의 기준 연령인 65세보다 높았다. 노인 기준 연령이 7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과 2년 사이 23.0%(2016년)에서 40.1%(2018년)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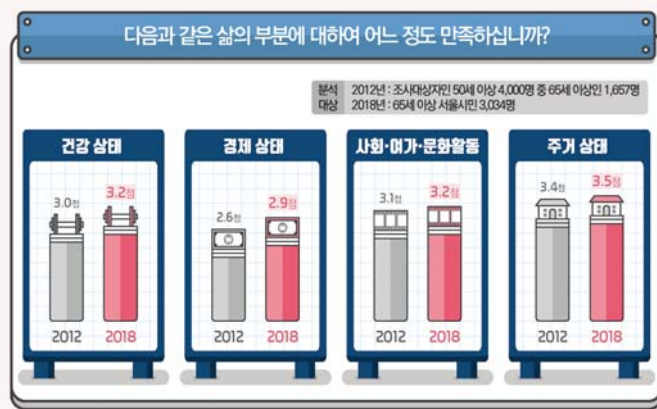
서울시 거주 노인 10명 중 6명은 독거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에 속해 있었다. 향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86.3%)이 많아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에 관한 욕구가 확인됐다.

응답자 중 61.7%는 혼자 살거나(22.4%)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39.3%)에 속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 34.6%는 허약집단으로 분류됐다.

독거·노인 가구에 속한 이들 중 10.3%는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다. 8.3%는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수발, 간호, 육아 등의 형태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만성질환 1.8개...우울증상 14%

노후 생활 만족도



서울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서울 시민

3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노

인은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응답자의 13.7%가 우울 증상을 나타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고혈압(53.1%)으로 조사됐다. 당뇨병(23.6%)과 고지혈증(21.5%)이 뒤를 이었다.

15점 만점에 평균 3.5점인 우울 지수의 경우 13.7%의 노인이 우울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들의 특성은 80세 이상, 무학, 독거,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등으로 요약된다. 15점 만점에 8~15점으로 응답한 노인은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건강, 경제, 사회·여가·문화활동, 주거 등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점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에 비교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뉴시스

서울시, 시민이 선정한 사업 30개에 77억 투입한다

전년 대비 83% 증가...사업별로 민관협업체 구성

서울시는 시민이 선정한 30개 사업 실행을 위해 시정협체형 사업에 77억8000만원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협체형 사업이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서울시 사업부서와의 숙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말한다. 올해 사업비는 77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 사업비 42억 5000만 원에 비해 83% 증가했다.

특히 시정협체형 사업은 모든 과정(계획 수립→실행→평가→환류)을 제안한 시민과 집행부서가 협의 해 함께 추진한다.

사업계획 수립 전에 제안시민과 사업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협업체 구성도 의무화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민관협체를 보장한다.

민관협체는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해 민관 공동 숙의 및 의사결정 공동평가를 수행하는 기구다. 사업계획서 수립, 성과 목표 설정, 사업추진 공동의사 결정 등을 수행한다.

사업 내역은 저소득층의 겨울 침구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세탁소',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유

기예망 및 돌봄지원 이동버스' 등 복지·장애인·청년·아동·교통·기후·생태 등 30개로 구성돼 있다.

매년 다음연도 시민참여예산을 편성·심의하게 되는데 2020년 시민참여예산시정협체형사업 규모는 100억원으로 신청접수는 2월 중순부터 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 담당관은 "시민참여예산-시정협체형사업은 숙의에 기반하고 사업의 제안뿐만 아니라 실행에도 민간 제안자가 참여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숙의과정을 내실화해 시민참여예산이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소방 사상최초 女소방서장 탄생

이원주 중랑소방서장으로 발령...1982년 임용



서울시는 서울소방 역사상 최초로 여성소방공무원인 이원주 서울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을 9일자로 일선 소방현장 지휘관인 중랑소방서장으로 발령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여성소방공무원은 총 624명으로 전체 인

원 6954명 중 8.9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서장은 지난 2013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첫 여성 감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치한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 상담관을 겸임했다.

시는 3급에 해당하는 지방소방준감에 대한 정기 승진·전보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소방행정과장에 이홍섭 지방소방준감을, 예방과장에 김시철 지방소방준감을, 재난대응과장에 김선영 지방소방준감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에 김학준 지방소방준감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

'각 소방서별 정치적인 여성소방공무원 간담회 추진' 등으로 여성소방공무원 고충 해소와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서장은 1982년 임용 이후 성동소방서 구급계장, 동대문소방서 위험물안전팀장,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서울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등 각종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재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소방 역사상 최초로 여성소방서장이 탄생했다는 데 대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소방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97%가 되는 만큼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여성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승진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둘째도 '다가구 자녀' 혜택 받는다

인천시가 다자녀 가구 조건을 자녀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자녀 3명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혜택이 자녀 2명이 있는 가구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말 보류된 인천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3월 시의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시의회 유세움(더

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지난해 인천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자녀의 정의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자녀 2명을 둔 가정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조례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자녀에 대한 정의가 달라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조례개정을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2자녀로 확대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라며 "이번 조례가 시의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세움 의원은 "최근 추세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자녀 가구도 많고, 둘째 이상만 되더라도 가정에 부담이 크다"며 "둘째 아이 출산을 장려하기보다는 둘째 아이 양육 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